

미국 편모가계의 저축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교

The Saving Decision of Female-Headed Households in the U.S. : A Comparison of Different Life Cycle Stag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 사 차 경 우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Instructor : Kyung-Wook Cha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Using the 1998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saving by female-headed households in the U.S, and investigated how these factors differ by life cycle stages. Age of children, age of female householders and their retirement status were used to categorize three life cycle stages: first stage - have at least one child under age 18; second stage - under the age of 62 and have no children under age 18; third stage - over the age of 62 and reti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ose with higher education and income and who were White were more likely to save. An interactive model showed that life cycle stag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aving decisions. Female-headed households in the first stage or the third stage were less likely than those in the second stage (reference group) to save. For female-headed households in the first stage and the third stage, the amount of income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decision to save. Also, in the group of households in the first stage, the receipt of welfare assistanc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saving.

주제어(Key Words): 저축결정(saving decision), 편모가계(female-headed household), 가족생활주기(life cycle stage)

Corresponding Author: Kyung-Wook Cha,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odaemun-k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099 Fax: 82-2-3277-3099 Email: kyungwcha@hotmail.com

I. 서론

지난 30여년에 걸쳐 현대사회는 사회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제도 및 가족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을 맞이했으며, 결혼해체 현상과 편부모가계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 10%를 밀돌던 편부모가계의 비율은 2000년에 18%로 증가했으며, 이들 편부모가계 중 76% 가량이 편모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U.S. Census Bureau, 2001).

편모가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은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보고하였다. 전통적으로 부양을 담당했던 남성 가구주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편모가계는 경제적 형편의 악화 내지는 빈곤계층으로의 전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Arendell, 1987; Espenshade, 1979; Lino, 1991). 편모가계의 극빈화 현상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앙드레미셀(1986)은 2000년도의 극빈인구가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로만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정도이다. 최근 미국의 빈곤계층과 관련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부모가계 중에서는 단지 4.8%만이 빈곤선 이하의 경제수준에 처해 있는 것에 반하여,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28%가 빈곤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흑인 편모가계의 39%가 빈곤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U.S. Census Bureau, 2001). 이처럼 편모가계가 빈곤층의 주류가 되고 있는 바, 이들의 재정상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든 가계는 소비지출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기대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한다. 그러나 전생애주기에 걸쳐 소득과 소비지출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가계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측하고 준비함으로써, 전생애동안 소득과 지출 흐름의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가계저축은 이러한 불일치를 완화하고, 안정된 재정상태와 생활표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저축을 택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목표에 도달하고, 경제적 복지를 실현하며, 나아가 건전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이다(이연숙 외, 2000; Mullis, 1984).

일반적으로 가계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가계의 가처분소득 또는 생산액 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만큼을 소비하고 남은 부분으로 정의된다. 저축은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될 경우 생활자금으로 공급되는 부분인 동시에, 자녀교육, 주택구매, 은퇴계획 등 가계의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되는 여분의 자원이다(이승진 외, 1996; Browning & Lusardi, 1996; Xiao, 1996). 이렇듯 저축이 가계의 재정적 지위, 경제적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임을 인지할 때, 경제적 취약집단으로 알려져 있는 편모가계의 저축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 동안 편모가계의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편모가계의 저축행동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흔치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계의 저축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단계로 1998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 원자료를 이용하여 몇 가지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편모가계의 63.6%가 그들의 가처분소득보다 많은 돈을 소비지출하거나, 혹은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액이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 가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저축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고, 그들의 저축여부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에 이루어질 저축규모 분석을 위한 선행단계의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가계저축이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수단임을 인지할 때, 편모가계가 속해 있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그들의 저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저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미국에서 편모들의 저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들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아직 저소득 편모가계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선행연구들은 저축행동이 가계소득, 자산수준 및 결혼상태, 가족생활주기, 교육수준, 인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Browning & Lusardi, 1996; Xiao, 1996). 미국 전국규모의 조사인 SCF(Survey of Consumer Sciences)를 이용하여 가계의 순자산 증가분을 분석함으로써 가계저축 상태를 파악한 Avery와 Kennickell(1991)의 연구에 따르면, 저축률과 저축규모가 소득, 자산, 교육수준과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고, 특히 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인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보다 유의하게 많은 저축액을 보유하고, 편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저축은 가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의 재정적 자산을 축적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소비와 저축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많은 이론들은 소득과 저축 사이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설명한다. 소비지출 함수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고 가정하는데, 소비와 저축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소득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저축은 소득의 함수이기도 하다(Varian, 1987).

Hefferan(1982)은 저축행동이 다른 어떤 변인들보다도 소득 및 자산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저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소득이 가장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저축액에 있어서는 자산 보유액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주거상태, 저축동기 등의 변수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Davis와 Schurmm(1987)의 연구결과 역시 소득이 저축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개인이나 가계가 가족생활주기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는 저축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전 생애에 걸쳐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축 혹은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Ando & Modigliani, 1963). 선행연구들은 가족생활주기와 관련된 변인들이 가계저축 및 재정상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왔다. Murphy와 Staples(1979)는 가구주의 연령, 결혼상태, 자녀의 연령을 사용하여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를 구분하였는데, 기혼상태인 부부들이 맞벌이를 함으로써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저축률 또는 저축액을 증가시키며,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일 때 저축률이 가장 높고, 40대에는 감소하다가 50대 이후가 되면 다시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30대에는 자녀가 어려서 비교적 지출이 적은 편이 아니라,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률이 증가하고, 40대에는 자녀양육과 교육 때문에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저축률은 감소하다가, 50대가 되면 다시 지출이 감소하고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저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정훈, 1993; 백설희, 1984).

Lydall(1955)은 저축 및 소비행동의 변화가 연령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저축행동을 비교한 결과,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집단에서 연령이 저축행동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Espenshade(1984)는 자녀의 연령이 자녀의 수나 가구원의 수 보다 저축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과 저축행동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저축액과 기타 자산보유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very & Kennickell, 1991; Browing & Lusardi, 1996). 그리고 Hefferan (1982)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에 대해 높은 선호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2.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모든 인구통계적 집단 중 가장 빈곤한 집단의 하나로 꼽히는 편모가계의 저축행동은 양부모가계의 저축행동과는 다른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Bryant(1986)는 편모가계의 자산운영 및 저축행동은 양부모가계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족생활주기나 가족특성 등을 대표하는 변인들에 의해 받는 영향력도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편모가계의 증가와 더불어 그들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게 편모가계의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빈곤율에 대해 강조하였다(Lino, 1990; London, 2000; Paulin & Lee, 2002). 선행연구들은 남성의 경제적 복지수준이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 반해, 여성은 남편과의 사별이나 이혼이 그들의 경제수준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상태를 기혼, 이혼 및 별거, 미혼모, 사별의 네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이들 가계의 경제상태를 분석한 Lino(199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부모가계는 평균적으로 이혼하거나 사별한 편모가계의 2배, 미혼모가계의 4배 정도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ss(1984)는 1968-79년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사용하여 자녀가 있는 부부가 기혼상태에 있었던 마지막 해와 이혼 후 편모가계가 된 후 5년 간의 주거비와 식비 지출을 상·중·하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이혼으로 인해 편모가계가 되면서 소득감소를 겪었으며, 특히 주거비와 식비 등 기초적인 생활필수비용 지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편모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가족해체의 증가 이후, 여성들이 대부분 자녀양육을

맡으므로 편모가계가 편부가계 보다 가족의 크기는 큰 것에 반하여, 여성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남성 보다 낮고,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진다(Bellar & Chung, 1988). Stuart(1987) 역시 편모가계가 빈곤한 재정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편모의 대다수가 저임금, 비전문, 비상용직에 종사하며, 또한 비취업자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편모가계를 위한 공적부조의 수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편모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 패턴을 비교하였고, 일반적으로 편모가계의 총 소비지출액과 각 비목별 지출액이 양부모가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Abdel-Ghany & Schwenk, 1993; Horton & Hafstrom, 1985; Lino, 1990).

1987년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하여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을 비교한 Schuchardt와 Guadagno(1991)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저소득층 가구는 모두 지출이 소득 보다 더 많은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편모가계의 경우는 적자수준이 매우 심각했다. 저소득 편모가계는 저소득 양부모가계에 비해 주거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교통비에 지출하는 비중은 낮았다.

편모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Lino(1990)의 연구에 따르면, 편모가계의 42%가 소득 보다 지출이 많았으며, 가처분소득의 90% 가량을 음식, 의복, 교통비, 주거유지비 등 필수재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편모의 연령이 30-40대일 때, 소득 대비 필수재 소비지출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orton과 Hafstrom(1985)는 편모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소득, 인종, 여성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편모가계의 경제상태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인숙(1998)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편모가계의 소득 및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편모가계의 소득이 양부모가계 소득의 절반정도인 반면, 소비지출은 78%정도의 비율로 나타나 편모가계의 경제상태가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보여주었다. 이윤금과 양세정(1999) 역시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 자산 및 부채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편모가계의 소득, 저축 및 부채액 모두가 양부모가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소비지출 역시 편모가계가 양부모가계 보다 적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편모가계가 0.94로 양부모가계의 0.7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한 부분을 저축이라고 정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양부모가계는 저축수준을 증가시켜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에 반해, 편모가계의 수지상태표에는 저축이라는 용어가 부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축을 하는 편모가계와 그렇지 않은 편모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고, 각기 다른 가족생활주기에 속해 있는 편모가계의 저축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저축을 하는 편모가계와 그렇지 않은 편모가계 사이에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가족생활주기별로 편모가계의 저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미국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표집한 1998년도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이다. SCF는 미국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연금 등의 재정적 변인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매 3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로서, 1998년 총 4,305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사별, 이혼, 별거 및 미혼모로 인하여 여성이 가구주가 된 편모가계 627가구였다. 편모가계의 저축행동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세 단계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의 분류는 자녀의 연령, 편모 가구주의 연령 및 은퇴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아직 18세 이하인 편모가계를 전기로 분류하였으며,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고 편모가 62세 미만인 집단을 중기로, 그리고 62세 이상이면서 은퇴를 한 편모가계를 후기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정형성 및 확립기는 제외하였고,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녀양육비 수령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가족확대기(본 연구에서는 전기로 명명)와 축소기(본 연구에서는 중기로 명명)를 구분하였다. 중기는 자녀는 독립을 했지만 편모는 아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로서, 학자에 따라 경제적 회복기로 명명되기도 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혼자 부담하는 편모의 은퇴여부를 기준으로 후기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노년기 혹은 은퇴기로 불리우는 단계이다.

3. 측정도구의 구성

종속변인은 이분변인으로서, 저축을 하는 편모가계(=1)와 저축을 하지 않는 편모가계(=0)로 분류되었다. 이는 1998 SCF 조사의 문항 중, “지난 1년 동안의 가계지출 (예금, 증권 등 일체의 투자금액은 제외)이 가계소득 보다 많았습니까? 비슷했습니까? 혹은 적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근거로, 소득이 지출 보다 많았던 편모가계를 저축하는 가계, 소득이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변 인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인 저축행동 결정	1 = 저축 (소득 > 지출) 0 = 비저축 (소득 ≤ 지출)
독립변인 개인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인종 경제적 특성 직업 취업상태 가계소득(ln) 위자료/자녀양육비 사회보장금 가족생활주기* 전기 중기 후기	편모가구주의 연령 (세) 교육년수 비백인(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등) = 1, 백인 = 0 4 집단으로 구분 1) 주부/무직 2) 전문/관리직 3) 서비스직 4) 생산/노동직 종일근무 = 1, 시간제근무 혹은 비해당 = 0 편모가계의 연간 세전 총소득(\$)의 자연로그 위자료 혹은 자녀양육비 수령 = 1, 비수령 = 0 TANF, SSI 등의 사회보장금 수령 = 1, 비수령 = 0 적어도 1명 이상 자녀가 18세 이하 18세 이하의 자녀 없고, 편모 연령 62세 미만 편모 연령이 62세 이상이면서 은퇴

* 62세 미만이면서 은퇴한 편모는 주부/무직으로 간주하여 중기에 포함함
62세 이상이면서 은퇴하지 않은 편모는 표본에서 제외하였음

지출과 비슷했거나 적었던 가계를 저축하지 않는 가계로 정의한 것이다. 이는 저축행동에 대한 간접적 측정도구로서, 저축액 또는 대출액 수준을 설명하는 잠재변인(latent variable)에 1 또는 0의 값을 부여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독립변인은 개인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특성에는 편모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인종이 포함되었고,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로는 직업, 취업상태, 소득, 위자료/자녀양육비 수령여부 및 사회보장금 수령여부가 포함되었다. 또한, 세 단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개의 가변수 및 각 독립변인과 가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사용되었다. 각 변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연구모델 및 분석방법

이분변인으로 표현된 저축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 모델에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을 추가하여 각각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가족생활주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즉,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분류된 하위 세 집단을 구분하는 가변수 및 그 가변수와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을 모델에 포함한 것이다.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편모들의 저축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모델인 로그오즈함수(log odds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x) = \log \frac{\pi}{1-\pi}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 + D_1^*(\beta_{01} + \beta_{11} x_1 + \dots + \beta_{k1} x_k) \\ + D_2^*(\beta_{02} + \beta_{12} x_1 + \dots + \beta_{k2} x_k)$$

여기에서 π 는 저축행동이 일어날 확률이고,

x_i ($i=1$ 부터 k)는 독립변인이며, β 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정된 로그 오즈 계수(log odds coefficient)로서, 오즈비(승산비, odds ratio)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D_1 과 D_2 는 가족생활주기를 나타내기 위한 가변수이다. 편모가계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으면(전기), $D_1=1$ 그렇지 않으면 $D_1=0$ 으로 가변수화 하고, 편모가구주의 연령이 62세 이상이고 은퇴했으면(후기), $D_2=1$ 그렇지 않으면 $D_2=0$ 으로 가변수화 하였으며,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고, 편모가구주의 연령이 62세 미만인 가계(중기)를 준거집단으로 사용하였다. 가변수를 이용하여 생활주기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할 때, 각 독립변인들이 갖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전기 [$D_1=1, D_2=0$]

$$g(x) = (\beta_0 + \beta_{01}) + (\beta_1 + \beta_{11})x_1 + \dots + (\beta_k + \beta_{k1})x_k$$

중기 [$D_1=0, D_2=0$]

$$g(x)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후기 [$D_1=0, D_2=1$]

$$g(x) = (\beta_0 + \beta_{02}) + (\beta_1 + \beta_{12})x_1 + \dots + (\beta_k + \beta_{k2})x_k$$

위의 식에서, 준거집단인 중기에서 독립변인 x_1 의 계수는 β_1 이지만, 전기에서의 x_1 의 계수는 $(\beta_1 + \beta_{11})$ 이고, 후기에서의 계수는 $(\beta_1 + \beta_{12})$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β_{11} 혹은 β_{1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다면, 이는 독립변인 x_1 이 저축결정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생활주기별로 유의하게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편모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총 627 가구 중 적어도 18세 이하의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a

독립변인		전체 편모가계 (n = 627)	전기 편모가계 (n = 142)	중기 편모가계 (n = 299)	후기 편모가계 (n = 186)
연령		58.85 (17.36)	38.98 (8.18)	57.48 (13.81)	76.20 (7.27)
교육년수		12.64 (3.08)	12.97 (2.49)	12.76 (3.40)	12.21 (2.89)
인종	비백인	151 (24.1 %)	55 (38.7 %)	70 (23.4 %)	26 (14.0 %)
	백인	476 (75.9 %)	87 (61.3 %)	229 (76.6 %)	160 (86.0 %)
직업	주부/무직	330 (52.6 %)	40 (28.2 %)	104 (34.8 %)	186 (100.0 %)
	전문/관리직	115 (18.3 %)	38 (26.8 %)	77 (25.8 %)	
	서비스직	156 (24.9 %)	56 (39.4 %)	100 (33.4 %)	
	생산/노동직	26 (4.1 %)	8 (5.6 %)	18 (6.0 %)	
취업상태	종일근무	246 (39.3 %)	87 (61.3 %)	159 (53.2 %)	
	시간제근무/비해당	381 (61.8 %)	55 (38.7 %)	140 (46.8 %)	
연간 가계소득(\$)		36,156.41 (245,559.21)	37,993.30 (100,661.16)	43,048.81 (95,590.95)	27,427.13 (125,239.29)
자녀양육비/위자료	수령	83 (13.2 %)	64 (45.1 %)	17 (5.7 %)	2 (1.1 %)
	비수령	544 (86.8 %)	78 (54.9 %)	282 (94.3 %)	184 (98.9 %)
사회보장금(TANF, SSI)	수령	81 (12.9 %)	30 (21.1 %)	40 (13.4 %)	11 (5.9 %)
	바수령	546 (87.1 %)	112 (78.9 %)	259 (86.6 %)	175 (94.1 %)

^a 평균 (표준오차) 혹은 빈도(퍼센트)가 기록되었음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전기 편모가계는 142가구(22.6%),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고 편모가 62세 미만인 중기 편모가계는 299가구(47.7%), 편모의 연령이 62세 이상이고 은퇴를 한 후기 편모가계는 186가구(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에 해당하는 편모들의 평균 연령은 39세, 중기 편모들의 평균 연령은 57세였으며, 후기 편모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24%정도가 비백인(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등)이었으며, 후기 편모들의 경우 14%정도만이 비백인 것에 반해, 전기에 속하는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39%가 비백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12.6년 정도였고, 전기 편모의 약 28%, 그리고 중기 편모의 35% 정도가 전업주부, 혹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편모들의 경우,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편모들이 가장 많았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평균 소득은 \$36,156이었으며, 전기 편모들의 연간 소득은 \$37,993, 중기 편모들의 연간 소득은 \$43,049 였으며, 후기 편모들의 평균소득은 \$27,427로 나타났다. 전기 편모들의 45%정도가 위자료나 자녀양육비를 수령한 것에 반해, 중기와 후기의 편모들은 각각 6%와 1%만이 수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보장금의 경우, 전기에 해당하는 편모의 21%, 중기의 13%, 그리고 후기 편모의 6%가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축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전체 편모가계의 36.4% (228 가구)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적어도 한 명 이상 둔 전기 편모가계 142가구 중에서 단지 27가구(19.0%)만이 저축을 했던 것에 반해, 중기 편모가계 299가구 중 127가구(42.5%), 후기 편모가계 186가구 중 74가구(39.8%)가 저축을 하고 있었다. 각 생활주기 단계별로 저축을 하는 편모집단과 저축을 하지 않는 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독립변인에 대하여 집단의 표본평균 또는 빈도를 구했으며, 두 집단간 표본평균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는

t-test와 두 집단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χ^2 test를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조사대상자 전체를 볼 때, 편모가구주의 연령은 저축을 하는 가계(62.7세)가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56.6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편모가구주의 교육년수는 전기, 중기 및 후기의 모든 단계에서 저축을 하는 집단이 저축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저축여부의 차이는 전기와 중기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편모들의 경우 저축을 하지 않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업을 갖고 있는 편모들 중에서는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저축을 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직업이 없는 편모들에 비하여, 종일근무를 하는 편모들이 저축을 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평균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저축을 하는 편모집단이 \$47,189, 저축을 하지 않는 편모집단이 \$25,150으로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중기 및 후기의 모든 단계에서 저축을 하는 편모집단이 하지 않는 편모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소득을 갖고 있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양육비나 위자료 또는 사회보장금을 수령한 편모가계는 오히려 저축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편모가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양육 및 교육에 요구되는 지출이 많아서 저축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가계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 근거하면,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는 편모가계가 저축을 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이 설명되어질 것이다.

3. 편모가계의 저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편모가계의 저축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 생활주기별로 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에는 로그오즈계수(log odds

〈표 3〉 저축여부와 생활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a

독립변인		전체 편모가계 (n = 627)		전기 편모가계 (n = 142)		중기 편모가계 (n = 299)		후기 편모가계 (n = 186)	
		저축 (n=228)	비저축 (n=399)	저축 (n=27)	비저축 (n=115)	저축 (n=127)	비저축 (n=172)	저축 (n=74)	비저축 (n=112)
연령		62.71 ^b (16.03)	56.64 (17.73)	41.44 (6.89)	38.41 (8.38)	59.20 (14.30)	56.22 (13.34)	76.50 (6.90)	76.02 (7.53)
교육년수		13.49 (2.65)	12.16 (3.21)	14.33 (2.24)	12.65 (2.45)	13.61 (2.65)	12.12 (3.76)	12.96 (2.70)	11.71 (2.92)
인종	비백인	27 (11.8%)	124 (31.1%)	5 (18.5 %)	50 (43.5%)	18 (14.2%)	52 (30.2%)	4 (5.4%)	22 (19.6%)
	백인	201 (88.2%)	275 (68.9%)	22 (81.5 %)	65 (56.5%)	109 (85.8%)	120 (69.8%)	70 (94.6%)	90 (80.4%)
직업	주부/무직	112 (49.1%)	218 (54.6%)	3 (11.1%)	37 (32.2%)	35 (27.6%)	69 (40.1%)	74 (100.0%)	112 (100.0%)
	전문/관리직	55 (24.1%)	60 (15.0%)	13 (48.2%)	25 (21.7%)	42 (33.1%)	35 (20.4%)		
	서비스직	54 (23.7%)	102 (25.6%)	10 (37.0%)	46 (40.0%)	44 (34.6%)	56 (32.5%)		
	생산/노동직	7 (3.1%)	19 (4.8%)	1 (3.7%)	7 (6.1%)	6 (4.7%)	12 (7.0%)		
취업 상태	종일근무	99 (43.4 %)	147 (36.8%)	21 (77.8%)	66 (57.4%)	78 (61.4%)	81 (47.1%)		
	시간제근무	129 (56.6%)	252 (63.2%)	6 (22.2%)	49 (42.6%)	49 (38.6%)	91 (52.9%)		
	/비해당								
연간 가계 소득 (\$)		47,189 (196,857)	25,150 (56,801)	54,215 (98,365)	22,446 (19,363)	61,956 (101,094)	26,873 (51,394)	34,573 (97,304)	20,281 (84,273)
양육비/ 위자료	수령	17 (7.5%)	66 (16.5%)	11 (40.7%)	53 (46.1%)	6 (4.7%)	11 (6.4%)	0	2 (1.8%)
	비수령	211 (92.5%)	333 (83.5%)	16 (59.3%)	62 (53.9%)	121 (95.3%)	161 (93.6%)	74 (100.0%)	110 (98.2%)
사회 보장금	수령	12 (5.3%)	69 (17.3%)	4 (14.8%)	26 (22.6%)	7 (5.5%)	33 (19.2%)	1 (1.4%)	10 (8.9%)
	비수령	216 (94.7%)	330 (82.7%)	23 (85.2%)	89 (77.4%)	120 (94.5%)	139 (80.8%)	73 (98.6%)	102 (91.1%)

^a 평균 (표준오차) 또는 빈도 (퍼센트)가 기록되었음.

^b t-test와 χ^2 test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진한 이탤릭체**로 표시하였음.

coefficients), 표준오차 (standard error) 및 오즈비(또는 승산비, odds ratios)가 제시되어 있다. 로그오즈계수는 오즈비(odds ratio)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오즈비는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저축행동 결정의 오즈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1보다 크면

오즈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오즈를 감소시킨다. 즉, 오즈비가 1로 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즈비로부터 1을 빼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독립변인이 1 단위 변할 때 오즈의 변화량 증감분을 퍼센트로 알

〈표 4〉 편모가계의 저축결정에 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a

독립변인 (괄호안은 준거집단)		주효과 Coefficient Odds Ratio		상호작용 효과			
				전기		후기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상수항		-1.630* (0.745)		-10.225** (3.633)		-5.612** (2.072)	
교육년수		0.097* (0.046)	1.102	0.008 (0.125)	1.007	-0.084 (0.082)	0.919
인종(백인)	비백인	-0.756* (0.332)	0.469	-0.130* (0.06)	0.878	0.104 (0.711)	1.109
직업 (주부/무직)	전문/관리직	-0.091 (0.482)	0.913	1.708 (1.184)	5.518		
	서비스직	-0.269 (0.443)	0.764	1.508 (1.146)	4.517		
	생산/노동직	-0.222 (0.665)	0.801	1.098 (1.702)	2.997		
취업상태 (시간제/비해당)	종일근무	0.518 (0.391)	1.679	-0.568 (0.884)	0.567		
연간 가계소득(\$)		0.215** (0.081)	1.240	0.782** (0.334)	2.184	0.668*** (0.222)	1.951
양육비/위자료 (비수령)	수령	-0.805 (0.543)	0.447	0.306 (0.739)	1.358		
사회보장금 (비수령)	수령	-0.965* (0.371)	0.381	2.396** (0.936)	10.975	0.109** (0.041)	1.115

^a 단순화한 모델 $g(x) = XA + D_1XB + D_2X\Gamma$ (where, X 는 독립변인 벡터, $D_1 = 1$ (전기) 또는 0 (그외), $D_2 = 1$ (후기) 또는 0 (그외), A, B, Γ 는 회귀계수 벡터)에서, A 가 주효과를 B 와 Γ 가 상호작용효과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수 있다 (DeMaris, 1992; Pampel, 2000).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는 예상했던 바대로, 가족생활주기가 편모가계의 저축 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전기 편모가계가 저축을 하는 확률이 가장 낮았으며, 편모가 62세 이상이고 은퇴를 한 후기 가계 역시 준거집단인 중기 - 18세 이하의 자녀는 없고 편모가 62세 미만 - 편모들 보다 유의하게 저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확대기에 해당되는 전기 편모가계들은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이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이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지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축이 어렵고, 은퇴기에 해당하는 후기 편모가계들은 가용한 소득의 격감으로 인하여 저축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편모가구주의 교육년수는 중기에 속하는 집단이 저축결정을 하는데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가족생활주기 중 중기에 속하는 가족은 은퇴기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 등의 재무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 바, 교육수준이 높은 편모들이 노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계저축에 있어서의 인종의 차이를 살펴보면, 백인 편모가계가 비백인 편모가계 보다 저축을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는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전기에 속한 비백인 편모들의 경우, 로그오즈 계수는 $(-0.756) + (-0.131) = -0.887$ 로서, 그들이 저축을 하는 확률이 백인 편모들에 비하여 59% 가량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기에 속한 편모들의 경우에는 53% 가량 덜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 종사하는 직업의 차이는 저축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지만, 전기, 중기 및 후기의 편모가계 모두에게 있어 소득의 증가는 그들의 저축 가능성을 증가시켰고, 그 영향력은 각 생활주기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계소득은 중기 보다는 전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편모들의 저축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계가 저축을 하는 확률은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 Families),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od stamps 등 사회보장제도의 원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 그 영향력 역시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중기와 후기의 편모가계에서는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는 가계의 저축율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편모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빈곤하기 때문에 저축을 역시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전기에 속하는 편모집단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를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전기 편모집단의 저축률이 다른 집단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는 전기 편모들의 저축가능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의 경우 TANF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가계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 소득의 증가를 야기하고, 저축할 확률 또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전기에 해당하는 편모들의 경우,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는 편모집단의 로그오즈계수는 $(-0.965) + (2.396) = 1.431$ 로서, 그들이 저축을 하는 확률이 사회보장금을 수령하지 않는 편모들 보다 무려 318%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저축이 가계의 재정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기본적 지표임을 인지하는 가운데, 저축을 하

는 편모가계와 저축을 하지 않는 편모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했으며, 이들의 저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력을 갖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으로 편모가구주가 백인이 아니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저축을 하는 확률이 낮았으며,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전기의 편모가계의 경우, 다른 주기에 속한 편모들에 비하여 저축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에 속하는 비백인 편모가계가 저축을 할 가능성은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전기 편모가계의 저축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계소득의 증가에 따른 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고, 사회보장금의 수령여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 62세 이상이고 은퇴를 한 후기 집단 역시 준거집단인 중기 편모가계 보다 저축율이 낮았으며, 가계소득 증가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은퇴기에 해당하는 가계들은 소득의 격감으로 인해 원하는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율이 낮기 마련인데, 특히 편모가계의 경우에는 가족생활주기의 이전 단계에서 노후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하는 장기재무계획을 세울만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편모가계 중에서도 특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계와 은퇴 후 노년기에 해당하는 가계들에게 소득과 사회보장금 등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편모가계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직접적인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편모의 취업기회를 알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저소득층 편모들에게 제공되는 공적부조 프로그램들은 직업을 얻기 전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기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노동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가 빈곤가정의 여성들이 아동보호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자는 의도를 가졌던 것과는 달리, 빈곤층이 복지수혜에 의존하여 비생산적이고 무책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층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고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과 편모에게 탁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미국의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의 결과는 편모가계가 95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비교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져서, 본 연구 결과 중기에 속하는 편모들의 저축율이 전기나 후기에 비해서 높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1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녀의 대학교육비용 및 결혼비용의 대부분을 부모가 부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편모들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경제적 취약성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 우위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에서의 편모가계는 일정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인간관계의 축소, 사회적 지위의 하락 등으로 인해 그들의 경제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편모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종업원 복지프로그램 및 소득세액공제 등의 수혜를 확대함과 동시에, 식품보조프로그램이나 공공임대, 국민주택 임대 등의 직접적인 공적부조를 제공하고, 탁아 프로그램이나 무상교육의 범위 확장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저축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혹은 저소득층 편모가계를 위해 저금리와 다양한 상환방식을 제공하는 대출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대출이라는 재무관리수단을 이용하고,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지출 흐름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편모가계의 저축결정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가족생활주기별로 비교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저축행동은 어느 일정시점에서의 단기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어나는 장기적인 재무행동이기 때문에, 좀더 거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에 의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저축결정 뿐 아니라 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족생활주기 별로 분석해 보는 시도가 이루어져 할 것이고, 전언한 바대로 종단적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편모가계의 저축을 순자산의 증가분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별, 이혼 및 별거, 그리고 미혼모로 구성된 편모가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세부 집단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양부모가족과 편모가족이 각 생활주기별로 어떻게 다른 저축행동을 보여주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흥미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정훈(1993). 한국도시가계의 저축행동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설희(1984).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앙드레 미셀(1986).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변화순, 김현주 공역. 서울: 한울.
- 이승신, 김기욱, 김경자, 심영 & 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 이연숙, 양세정 & 주인숙(2000). 가계재무관리의 이해. 서울: 신정.
- 이윤금, 양세정(1999).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주인숙(1998). 편모가정의 가계경제상태 평가. 상명

- 대학교 자연과학연구, 5, 2-13.
- Abdel-Ghany, M. & Schwenk, F. (1993).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299-315.
- Ando, A. & Modigliani, K.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55-84.
- Arendell, T. (1986). Mothers and divorce: Legal economic and social dilemma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very, R. B. & Kennickell, A. B. (1991). Household saving in the U.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7(4), 409-432.
- Beller, A. H. & Chung, S. S. (1988). Child support and the feminization of poverty. Family Public Policy, Greenwood press.
- Browning, M. & Lusardi, A. (1996). Household saving: Micro theories and micro fac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 1797-1855.
- Bryant, K. (1986). Assets and debts in a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9-35.
- Davis, E. P. & Schumm, W. R. (1987). Savings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savings: A comparison of low and high income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247-256.
- DeMaris, A. (1992). *Logit modeling: Practical application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086. Newbury Park, CA: Sage
- Espenshade, T. (1984). *Investing in children*.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Hefferan, C. (1982). Determinant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5.
- Horton, S. E. & Hafstrom, J. L. (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mparis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3), 292-303.
- Kennickell, A. (1995). *Saving and permanent income: Evidence from the 1992 SCF*.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Retrieved September 26, 200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federalreserve.gov/pubs/oss/oss2/method.html>
- Lino, M. (1990). Factors affecting expenditur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3), 191-201.
- Lino, M. (1991). Expenditures on a child by single-parent families. *Family Economic Reviews*, 4(1), 2-7.
- Lino, M. (1994). Income and spending patters of single-mother families. *Monthly Labor Review*, 21(May), 30-37.
- London, R. A. (2000). The dynamics of single mother' s living arrangement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9, 73-96.
- Lydall, H. (1955). The life cycle in income, saving and asset ownership. *Econometrica*, 23(2), 131-150.
- Mullis, R. J. (1984). The dynamics of household sav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Murphy, P. E. & Staples, W.A. (1979). A modernized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12-22.
- Pampel, F. C. (2000). *Logistic regression: A primer*.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132, Newbury Park, CA: Sage.
- Paulin, G. & Lee, Y. G. (2002). Expenditures of single parents: How does gender figure in? *Monthly Labor Review*, July, 16-37.
- Schuchardt, J. & Guadagno, M. (1991). A comparison of lower middle income two-parent and

- single-mother families. *Family Economic Review*, 4(2), 9-17.
- Stuart, O. (1987). *Family process and problems: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NY: Sage publication.
- Varian, H. R. (1987). *Intermediate Microeconomics* (Third edition),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 U.S. Census Bureau. (2001, September 20). 2000-Poverty estimates by selected characteristics. Retrieved October 7, 200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ensus.gov/hhes/poverty/poverty2000/pv2000est1.html>
- Weiss, R. S. (1984).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5-127.
- Xiao, J. (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21-30.
-
- (2002년 7월 31일 접수, 2003년 5월 21일 채택)